

# 석유화학, 수출 400억달러에 도전

석유화학협회, 2011년 투자 5조8000억원 ... 선진경제 진입 앞장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11년에 총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공업협회는 1월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2011년 석유화학기업들이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기업들은 2011년 5조8000억원을 투자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인 399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선진경제 진입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다짐했다.

2010년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규모는 5조7000억원, 수출규모는 357억달러였다.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신년사에서 “2011년 무역 1조달러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석유화학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 허원준 회장(한화케미칼 부회장), 호남석유화학 정범식 사장, SK종합화학 차화엽 사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등을 비롯한 관련기업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06>